

정 창 섭 개인전

< meditation >



meditation Installation view

▶ 관람안내 / 조현화랑 _부산

전 시 명 : 정창섭 개인전 <meditation> Curated by Kim Yongdae

전시기간 : 2015년 7월 10일 (금) ~ 2015년 8월 30일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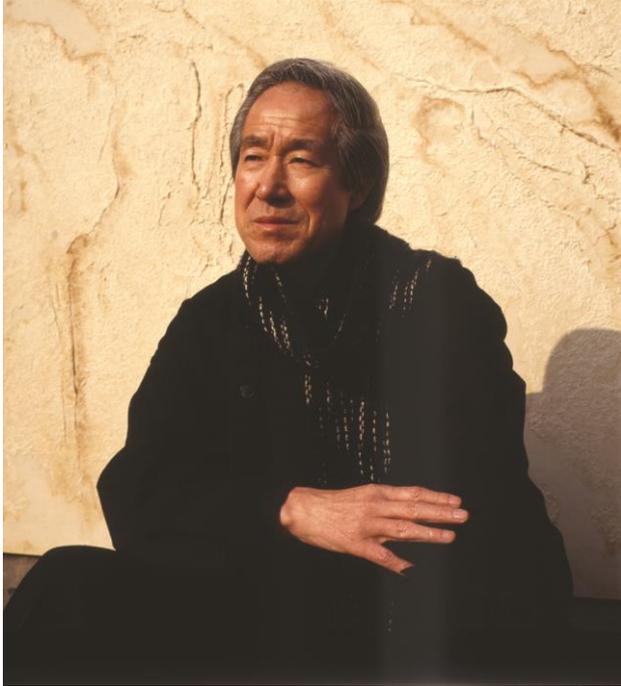
전시장소 : [조현화랑_Busan] 부산시 해운대구 중2동 1501-15 (중동 달맞이길 65번길 171)

개관시간 : 화~일요일 11:00~19:00 (매주 월요일 휴관)

전시담당 : 윤보람(010-2025-4737) / 주민영(010-2708-5161)

전시문의 : [조현화랑_Busan] T. 051.747.8853 / F. 051.742.8852 / E. info@johyungallery.com

[웹하드 정보: ID - johyun1990 / PW - 6364 \(게스트폴더 내리기 전용\)](#)



▶ 작가 소개

정창섭 (b. 1927~2011)

정창섭(1927~2011)은 한국 현대미술의 1세대 화가로서 우리나라 현대 미술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작가이다. 1953년 제2회 국전에서 특선하며 화단에 등단 후, 앵포르멜에서 시작하여 모노크롬을 거쳐 닥을 이용한 <닥>, <묵고> 등 한국 고유의 전통적 울림을 내포한 작품들을 통해 작가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했다. 정창섭 작가는 국내 뿐 아니라 일본, 미국, 호주, 중국, 프랑스 등에서 세계 곳곳에서 전시를 통해 그의 작품을 선보였다. 올해 2015년 6월에는 세계적인 갤러리인 페로탱 갤러리(파리)에서의 개인전과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 참여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또한 제12회 샤르자 비엔날레(3.5~6.5, 2015)에 참여와 파리의 세르누치 박물관에서 오는 10월부터 이우환, 이응노 등 주요 한국현대미술 작가와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현재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리움 삼성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등 국내 주요 미술관에서 소장되어 있다. 그 외 도쿄도미술관(일본), 네팔 왕립 미술관(네팔), 미에 현립미술관(일본), 시모노세키 시립미술관(일본), 히로시마시립미술관(일본)에도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 한국현대미술의 작가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전시 내용

2015년 7월 10일(금)부터 8월 30일(일)까지 조현화랑 부산에서는 정창섭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10년 국립현대미술관 회고전 이후 5년만에 열리는 국내 전시이며, 조현화랑에서는 1994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4번째 열리는 개인전이다. 한국 현대미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모색해온 정창섭 작가의 시대별 작품이 한자리에 전시되어 한국추상미술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정창섭 작가는 평생을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정신과 물질 등 이질적 개념이 합치 되는 몰아합일(物我合一)의 세계를 추구해 왔다. '한지(韓紙)'의 원료인 '닥'이라는 물질이 지닌 고유의 생명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침묵과 무명의 상태를 전제로 하여, '닥(楮)'을 주재료로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왔다. 작가는 특이하게도 한지(韓紙)를 '한지(寒紙)' 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한지야말로 추운 겨울에 만들어야 제격이라고 하며 한지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끊임없이 탐구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는 그를 '닥의 작가', '한지작업의 선구자' 라고 한다. '닥'을 '그리는' 이라는 기존 회화 관습에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유채 또는 먹, 물감의 대체물로 작가의 호흡과 체온이 스며들도록 손의 행위와 동작을 반복하여 본연의 모습을 표현했다. 물에 불려진 시간에 따라 명도와 채도가 변화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색감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끝없이 탐구했다. 물에 젖어 걸쭉해진 종이 완전히 그 힘을 상실했을 때 작가는 비로소 '닥' 이 가지는 물성 그 자체의 특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한다.

1950년대 초에서 70년대 초반까지의 정창섭 작품은 당시의 시대적, 정신적 상황이 반영 되어 주로 붉은색과 청색의 단색 유채를 사용해 두터운 마티에르의 강하고 거친 느낌을 주는 작품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끈적거리는 느낌이 싫어서 다른 것을 찾던 중 '닥' 을 만난 건 1970년 중반이었다. 다만 초기의 <鎌刈>시리즈 작업에서의 한지는 본격적인 물성의 표출보다는 단순히 화지로 사용되었다. 일종에 번짐 효과에 대한 실험적인 작업으로 수묵의 번지기, 텅김과 같은 드로잉 작업이었으나, 오래 지속되지 않고 오히려 수묵과 붓 마저 버리고 종이 가지는 본래의 물성 그대로를 표현으로 전환하였다. 1980년부터는 물체의 형상도 완전히 사라지고 지지대로서의 캔버스조차도 사라져 온전한 '닥'의 본래 모습이 캔버스와 혼연일체가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단하고 무표정의 모습으로 연한 황갈색에서 노랑기가 있는 베이지 색채 등 모두 단색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그 후 1990년을 전후해서 나타난 <묵고>연작은 80년대 작품보다 뚜렷한 사각의 형태와 초기엔 먹색, 청색 위에 붉은색, 회색 등 한가지 단색이 더 입혀졌다. 초기 작업보다 더 부드럽워지고 닥의 본래색과 대조되는 단색도 나타났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90년대의 <묵고>시리즈의 사각형 형태가 깊어지고 '닥'이 주는 음과 양의 대조가 뚜렷이 나타나며, '닥' 의 물성이 더욱 견고하고 단아한 모습의 투명화된 형태로 내재화되어 있어 작가가 구축해온 몰아합일의 사상이 심화되어 표현되었다.

나의 닥 작업은 주어진 종이표면에 어떤 우연적 과정을 펼쳐놓은 것이 아니고 종이의 원료인 닥을 주무르고 반죽하여 손으로 두드리는 전 과정을 통해 종이의 재질 속에 나의 숨결, 그리고 흔과 채취가 녹아들어 마침내 하나가 되게 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리하여 장작불을 지펴 그 온도를 가능하며 도자기를 구워내는 도공처럼 나를 잊어버린 경지에서 잔잔한 행위의 잔상들을 통해 내 마음에 번지는 내밀한 문양과 우연적 형상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작업은 서구적 논리성이나 어떠한 자연과학적 입장, 혹은 조형의 형식주의 논리로부터 비껴나 있다. 나의 작업은 양식이나 형식, 혹은 기존의 논리를 초극하거나 벗어버리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체의 지식과 의도성을 벗어버린채 정신의 자유를 맛보면서 때로는 어릴적 추억을 떠올리며 때로는 삶의 저편에 전개되는 기억의 잔상들을 떠올리며 장인처럼 닥을 통해 또 하나의 나를 만나려 하는 것이다.

그리지 않고 그려지는 세계, 의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세계, 그것이야말로 나의 작업의 최종적 목표라 할 수 있다. 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선의 세계를 맛보는 것처럼 동양적 정신과 물질의 조화를 나는 적막한 내 작업을 통해 이루려 하는 것이다. 삶의 허물을 벗듯, 시간 속에 동화된 화강암 표면처럼 모든 흔적과 얼룩과 우연을 통해 나는 물질, 시간, 자아 그리고 자연을 만나게 된다.

- 丁 昌 燮

국내전시로는 오랜만에 보여지는 정창섭 작가의 이번 조현화랑 개인전에서는 1980년대 <닥>시리즈 작품과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이어진 <묵고> 연작 작품들을 포함한 총 30여점이 전시된다. 연한 황갈색의 ‘닥’의 본래 모습 그대로를 작가의 손으로 두드리고 다듬어 자연스럽게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작품들과 90년대 초반의 한국적 자연색을 깊이 있으면서 부드럽게 담고 있는 작품들과 어우러져 강렬한 햇빛을 받아 더욱 빛을 발해 화이트 전시공간을 압도하고 있다. 소리 없이 조용하면서도 강렬하게 다가와 그 색채가 더욱 돋보이며, 은은한 향과 멋이 보여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가 일관성 있게 심화해온 정신과 물질이 합일치 되는 정창섭 작가의 순수한 작품세계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다양한 매체와 화려한 색채가 범람하고 있는 오늘, ‘닥 종이’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소박함과 자연 그대로의 조형미를 담아 은은한 여백의 멋이 우리를 매료시킨다. 서구적 합리주의 정신에서 벗어나 동양적 직관에 의한 작업으로 한국 고유의 미와 정서를 표현한 정창섭 작가의 작품은 한국 현대미술의 현주소를 살펴보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며, 한국현대미술의 역사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 작가약력

출생/작고

1927년 09월 22일 / 2011년 02월 24일

학력

1951 서울대학교 회화전공 학사

개인전

- 2015 조현화랑, 부산
갤러리 페로탱, 파리, 프랑스
- 2010 정창섭 회고展,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007 표 갤러리, 서울
표 갤러리베이징, 베이징
- 2004 조현화랑, 부산
- 2003 갤러리 유로, 서울
- 2001 표 갤러리, 서울
- 2000 조현화랑, 부산
- 1999 박여숙 화랑, 서울
시공화랑, 대구
도쿄화랑, 도쿄
- 1996 개인전, 갤러리현대, 서울
- 1995 마크 무어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 1994 조현화랑, 부산

- 도쿄화랑, 도쿄
- 1993 호암 갤러리, 서울
- 1985 우에다 갤러리, 도쿄
- 청탐갤러리, 청주
- 1984 아트코어센터, 로스앤젤레스
- 두손화랑, 서울 외 다수

단체전 (selected)

- 2015 제12회 샤르자 비엔날레(The present, the past, the possible), 샤르자 파운데이션, 샤르자, 아랍에미리트
WORKING WITH NATURE contemporary art from Korea, 조현화랑, 부산, 서울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 베니스, 이탈리아
- 2014 The Art of Dansaekhwa, 국제갤러리, 서울
- 2012 한국추상 10인의 지평,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11 추상하라!: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현대미술작품의 새로운 해석, 덕수궁미술관, 서울
텔미텔미: 한국-호주 현대미술 1976-2011,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시드니현대미술관, 시드니, 호주
기(氣)가차다, 대구시립미술관, 대구
- 2010 2010 한국 현대미술의 중심에서, 갤러리 현대, 서울
- 2009 한국의 모노크롬전, 샘터화랑, 상하이, 중국
- 2008 한국추상회화전 1958-2008,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드로잉 100년전: 1870-1970, 소마 미술관, 서울
결과 시김의 정신: 조선 목가구와 한국현대추상 미술전, 신세계 갤러리, 서울
- 2007 추상 미술, 그 경계에서의 유희전,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 분관, 서울
경기도미술관 신소장품전: 작품의 재구성, 경기도미술관, 안산
- 2006 한국현대미술의 거장과 증진전, 이화익 갤러리, 서울
- 2005 서울미술대전-회화, 어제와 오늘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04 한국의 평면 회화, 어제와 오늘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스며들기 침沈전, 이현갤러리, 대구
- 2003 백색스펙트럼-조선백자와 한국현대미술전, 세계 도자기 엑스포 조선관요박물관, 광주
- 2002 추상화의 이해전, 성곡미술관, 서울
사유와 감성의 시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근대화화 100선,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분관, 서울
갤러리 미술세계, 동경, 일본
- 2001 묘오(妙惡)의 그림자전, 사간갤러리, 서울
- 2000 한국현대미술의 시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1999 침묵의 화가들: 오늘의 한국전, 아시아미술관, 니스

Press kit

- 1998 침묵의 화가- 8인의 현대작가, 뷔르템베르그 미술관, 몽벨리야르, 프랑스
- 1996 한국 추상회화의 정신, 호암갤러리, 서울
- 1995 한국현대미술 파리전, 코르들리에 미술관, 파리, 프랑스
- 1994 현대한국회화전: 한국미술, 빛과 색, 호암갤러리, 서울
- 1992 자연과 함께: 한국 현대미술 속에 깃든 전통정신, 테이트갤러리, 리버풀, 영국

경력

- 2010-199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 1997-1992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회 위원

수상경력

- 1993 대한민국국민훈장 목련장
- 1987 제13회 한국현대미술제 중앙문화대상 (예술부문)
- 1980 제29회 국전 초대작가상 <귀 80-G> (예술원회장상)
- 1962 제1회 사이공국제비엔날레 동상 및 ESSO상
- 1955 제4회 국전 특선 <공방工房>
- 1953 제2회 국전 특선 <낙조落照>

주요 소장처 (selected)

- 국립현대미술관
- 서울시립미술관
- 부산시립미술관
- 대전시립미술관
- 한림미술관
- 리움 삼성미술관
- 아트센터나비
- 선재현대미술관
- 도쿄도미술관
- 영은미술관
- 서울대학교미술관
- 고려대학교박물관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 네팔왕립미술관
- 시모노세키미술관

meditation

글 김용대 Kim Yongdae

1.

정창섭(1927-2011)은 1951년 국립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1961년부터 1993년 정년퇴직 할 때까지 서울대학교에서 후배를 양성하며 조용히 한국미학의 현대적 해석에 몰두했다. 1970년대 중후반부터는 박서보가 이끄는 그룹활동을 통해서 한국현대미술운동인 단색화운동에 참여하여 평생을 현대미술의 개척에 온 힘을 쏟았다.

특히 1992년은 조용히 작업에 몰두하던 그에게,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그 해 정창섭은 영국의 Tate Gallery Liverpool에서 기획한 <working with nature: contemporary art from Korea>(curated by Lewis Biggs) 전에 윤형근, 김창렬, 박서보, 이우환, 이강소와 함께 초대 출품하여, 닥 작업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다. (이 전시는 세계적인 미술관이 한국의 미학에 근거하여 기획한 첫번째 한국현대미술주제전이 됨.) 이러한 주목은 1993년 호암아트갤러리 (Leeum의 전신, curated by Kim Yongdae) 에서 “그리지 않은 그림” 이라는 주제의 개인전으로 이어졌으며, 2010년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 기획 <올해의 작가>전 (curated by Kim Yongdae)에 “retrospective” 라는 명제를 통해 한국 단색화의 정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2015년 6월 파리의 세계적 Galerie Perrotin의 전관에서 “meditation” 이라는 주제로 대규모 전시가 열려 박서보, Pierre Soulages와 함께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2.

정창섭의 작업은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한국의 단색화운동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한국의 단색화운동은 이우환이 이끄는 일본의 모노하物派운동과 깊은 연관을 맺으며 발전해왔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단색화는 미국의 미니멀리즘, 이태리의 아르테 포베라, 일본의 모노하와 함께 개념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문맥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의 단색화는 일본의 모노하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일본의 모노하가 주장하고 있는 물物의 강조와는 차이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단색화는 “물物+성性” 에 가까우며, 여기서의 성性은 작가의 수행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물物만을 강조하는 일본의 모노하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단색화는 일본의 모노하와 만나는 교집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3개의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첫번째 구조는 수행적 측면으로, 반복하는 행위속에서 자신의 몸을 드린다는 점의 박서보의 연필묘법과 지그재그 묘법, 정상화의 플러스·마이너스 과정의 작업, 그리고 최명영의 평면조건속에서 진행되는 레이어적 작업이 이에 해당되며 두번째 구조는 물성적인 측면으로, 정창섭의 닥과 묵고작업, 윤형근의 엄버블루작업, 그리고 하중현의 마대뒤에서 물감을 밀어내는 작업이 해당되며 세번째 구조는 개념적인 접근으로, 광인식의 입체·평면작업, 이우환의 평면작업과 관계향작업, 그리고 최병소의 신문지에 차콜로 지우는 작업이 해당된다. 첫번째의 수행적 작업은 시각언어로서의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으며 두번째의 물성적 작업은 물物에 인간의 감정을 반영하는 한국의 미학과 연관되며 세번째의 접근은 이태리의 아르테 포베라, 미국의 미니멀아트·대지아트·프로세스아트와 개념적으로 연결된다.

3.

정창섭의 작업은 팽팽한 시간의 줄 위에서 신중하게, 우아하게 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의 물物에 두 상태-닥나무와 한지-를 전제하면서 분리하고 연결하는 뉴트럴한 순간을 말하고 있다. 하나의 사물을 떠나 다른 하나의 사물로 옮겨가기 전의 그 순간에 일어나는 행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정중동靜中動의 차원이다.

정창섭의 작업은 하나의 지각현상에 선禪의 형식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신의 눈이 떠지는 순간에 지각하거나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것은 ‘울림’ 에 의해서 만나게 되며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질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그가 어린 시절 겪었던 경험이 작업을 통해서 자신만의 기억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며 일종의 잠재의식적인 영상이 되었다. 그것을 더욱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어린 시절 체험했던 문창살의 자그마한 격자무늬를 활용하기도 하며 한지의 재료인 닥을 만지고 보면서 그의 기억을 지우기도 되살리기도 했다. 이러한 원초적 만짐과 기다림의 시간을 들여서 탄생한 그의 사각형은, 작업의 명제인 묵고默考처럼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그 무엇으로 존재하면서 일반적인 도형과 구별되는 ‘미묘한 차이’ 를 만들어내고 있다.

화면의 정지된 듯한 사각형은 들을 수 없는 순수한 이미지로서, 확대하지 않는 불변적 기호로 닥이라는 물성과 함께, 시간의 흐름과 함께 확장되는 공간이 되어 감각을 세분화하지 않고 고립시키지 않으며, 분화되지 않는 총체적 감각으로서 기능케 한다.

또한 정창섭이 택한 닥의 원시성은 보는 사람에게 뉘앙스의 확대와 가벼운 흥분을 유도하면서, 그의 기억을 하나의 물질로 환원하는 미묘함과 순수성을 동시에 담아내기도 한다. 그의 잠재의식에 가라앉아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인간적이지 않은 것(物)과 결합(性)하여 미묘함과 순수성을 담은 하나의 기호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4.

바탕이자 구조로서의 닥과 함께, 반복되는 사각형은 잔잔한 흥분이 스며있으며 화면에서 운율의 코드로 작용되어 그의 마음상태를 암시하면서 정확한 의미 없이 어떤 깨우침을 알려주려 하고 있다. 이처럼 깨우침을 위한 순간을 강조하는 그의 행위는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그의 기억 속으로 이동하고, 그의 신체는 그의 감각 속으로 연결되고, 그의 감각은 하나의 순간 속으로 이동하여 특수한 형식으로서의 정사각형을 만들어 내었다. 그것은 독립적인 주제, 독립적인 색과 질감을 가지면서 극적 효과, 과장, 오만함을 경계하는 신중함을 유지하는데, 그는 그 공존에 동의하면서 무한한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

이 때 화면의 닥의 작은 주름과 강직한 선, 텅 빈 사각형 표면의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미묘한 균열은 표현하고자 하는 일체의 의지를 제거하기 위한 그의 도구가 되고 있다.

그의 작업은 아무것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기호가 되어 ‘이것’ 이라고 지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 도 말하지 않고 있다.

* 전시 작품이미지&캡션

이미지를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사진제공:조현화랑>을 함께 표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묵고 MEDITATION 23606

2003

best fiber on canvas

162 x 130cm

(사진제공:조현화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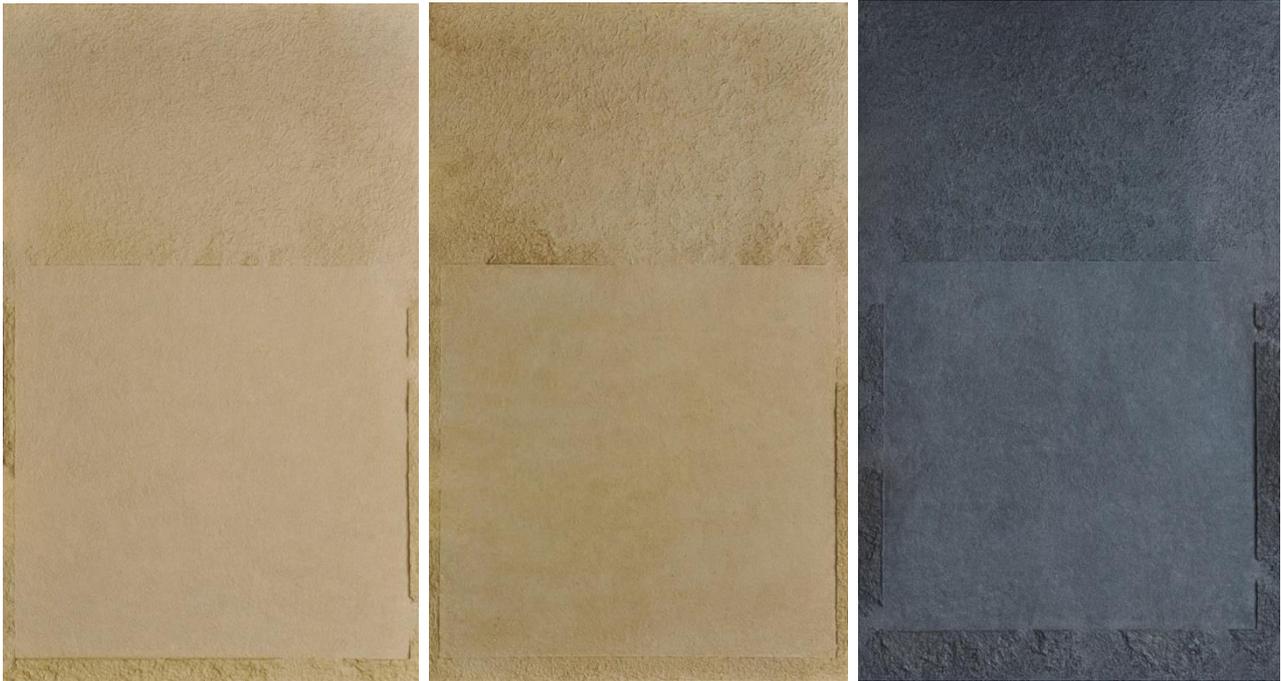
목고 MEDITATION 9613

1996

best fiber on canvas

260 x 160cm

(사진제공:조현화랑)



목고 MEDITATION 9603

1996,

best fiber on canvas

260 x 160cm

목고 MEDITATION 9605

1996

best fiber on canvas

260 x 1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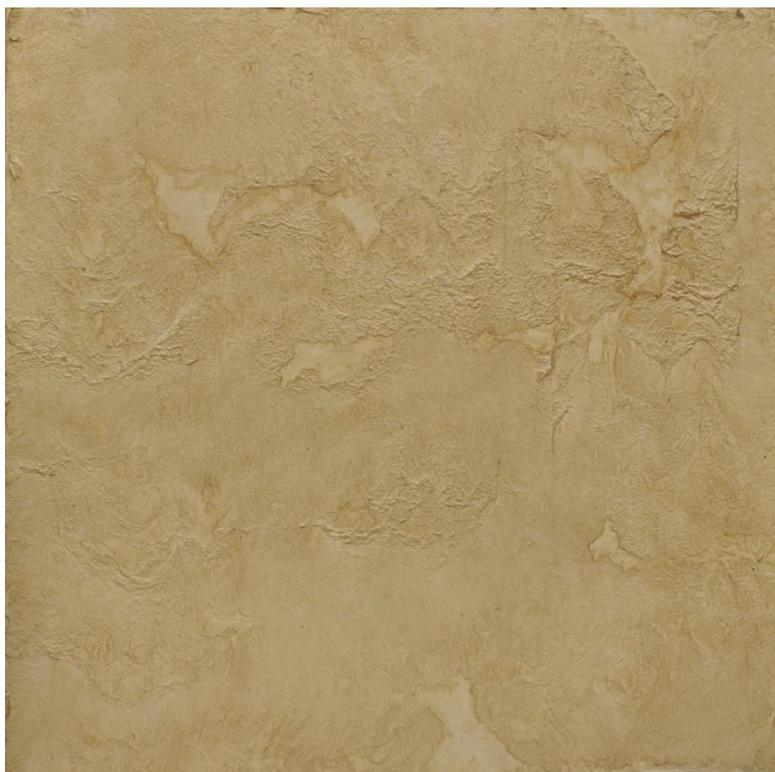
(사진제공:조현화랑)

목고 MEDITATION 9613

1996

best fiber on canvas

260 x 160cm



닥 TAK 84441

1884.

best fiber on canvas

70 x 70cm

(사진제공:조현화랑)